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of NewsLetter

발행인 : 연병길 / 편집인 : 오강섭 / 발행처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서울 강동구 길동 445 한림대학 강동성심병원 5층 정신과 외래 / TEL : 02-2224-2268 / FAX : 02-487-0544
발행일 : 2006년 11월 10일 / 인쇄인 : 김영길 / 등록번호 : 제 2-124 호 / 제 작 : 중앙문화사 140-846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2-15 / TEL : 02-717-5511 FAX : 02-717-5515

Contents

- 02 | 이임사
- 04 | 취임사
- 06 | 학술 활동 소식
- 10 | 해외학회 참관기
- 12 | 학술대회 안내
- 15 |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 총연합회 관련 소식
- 15 |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진행 소식
- 15 | 회원 동정
- 16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논문 투고 안내

| 이임사 |

임기를 마치며...



이 임 사

이제 물러날 때가 왔습니다.

2년 전 이사장직을 시작할 때가 엇그제 같은 데 벌써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하고 돌이켜 봅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깊이 후회가 됩니다. 취임 시에 구상하였던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은 금년 9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에서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가 부결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박종한 고문께서 이사장이셨을 때 본인이 노인요양보장제도 관련 일을 하면서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주장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기 2년간은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올인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곱 번의 노인정신건강 전문과정 워크숍과 춘추계 학술대회를 통하여 가능한 한 많은 회원들이 노인정신건강세부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지식과 노인정신질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술기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체 정신과 전문의의 절반이 넘는 약 1,100여명의 전문의 회원이 등록하였으며 약 600명 이상이 세부전문의 취득에 필요할 평점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찬성하시고 동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인증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 학회를 책임지고 이 제도를 추진해왔던 저로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희 세부전문의제도를 지지하고 참여하셨던 여러 회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노인정신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노인정신의학회 회원과 나아가 정신과 전문의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와서 아예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자체적으로 노인정신의학 전문가를 교육, 훈련시키고 정해진 평가를 거친 후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는 현재까지 추진해왔던 세부전문의

| 이임사 |

에 상응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정인과 이사장님과 차기 집행부에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아쉬움은 노인정신의학 학회지를 학술진흥재단에 등록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간행이사께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원저를 비롯한 게재 원고를 수집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원고를 게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정신의학 논문상”을 제정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용인정신병원에 계신 이정식 회원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식 회원에게 축하드리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많은 원저가 노인정신의학에 게재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열심히 일해 주신 실행 이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옆에서 지켜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학회 고문님들과 여러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기 동안 제가 알게 모르게 누를 끼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노인정신의학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학문인 동시에 아직도 험난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정인과 이사장님과 차기 집행부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006년 11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연 병 길

| 취임사 |

새로운 길에 들어서며...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1994년 4월 8일 창립총회로 설립된 이래 2006년 11월 현재 451명의 전문의가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아마도 대한신경정신과학회 산하 23개의 분과학회 중 전문의 정회원 숫자가 가장 많은 학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인정신의학회는 다른 학회보다 빨리 교과서를 집필하여 2판 째 출판했고, regional meeting 이지만 국제학술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루어 명실상부하게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학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대 객 동일 회장님을 비롯하여 역대 이사장님들과 회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계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신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별 상대가치개편작업에서 100.4점으로서, 가까스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급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사에서 “돈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없는 국가” 즉 의료의 보장성강화계획을 실현시키겠다고 천명하였고, 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내역심사 및 갖가지 규제를 확립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는 작업으로서 내년이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정책기조는 앞으로 의료계를 더욱 압박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정신과이고 그 중 특히 노인정신의학회 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이런 어려움을 타개 해 나가기 위해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회원 개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임기동안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무엇보다 노인정신건강세부전문 의제도에 관한 것을 꼽겠습니다. 전임집행부의 중점사업으로서 정신과정회원의 거의 반수에 가까운 회원이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연수교육 및 워크샵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600명 이상이 세부전문 의 취득에 필요한 평점을 이수하였으나, 본 학회 인증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도입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간 평점을 이수한 회원들에게 세부전문 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또한 당면한 중요 사안입니다.

현재 의협, 복지부, 유관단체간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상정된 법안이 재논의 중이며, 명칭 또한 정기요양보장이나 보험이나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징수는 공단,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취임사

| 취임사 |

말아야 한다고 논쟁중이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치료에 대한 사안들도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합니다.

치매치료에 있어 정신과와 신경과의 차별수가문제와, 치매환자의 폐쇄병동 입원결정권한이 없는 신경과 의사의 정신보건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계속 진행 해 왔던 것들입니다. 저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보다는 그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 외에도 노인학대의 문제에 대한 법적, 학문적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원의 친교와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제적 교류를 통한 학술적 발전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2년간 함께 할 새 집행부의 명단입니다.

이 사 장 정인과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과)

부 이 사 장 조맹제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과)

함 웅 (계요병원)

차기이사장 오병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총 무 유승호 (건국대학교병원 정신과)

학 술 김도관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기 획 이창욱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정신과)

교 육 조성진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신과)

홍 보 이동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과)

보 험 최중혁 (국립의료원 정신과)

국 제 오강섭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간 행 정한용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과)

무 임 소 김도훈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정신과)

신일선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

김성환 (동아대학교병원 정신과)

감 사 김영철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정신과)

이 철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정신과)

고 문 광동일, 유계준, 이정호, 박종한, 연병길

평 이 사 이상연, 이민수, 기백석, 전진숙, 강홍조, 김영훈, 김영돈, 윤진상, 서국희, 장안기, 정은기, 신영민,

김희철, 고효정

2006년 11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정 인 과

| 학술 활동 소식 |

- 노인정신건강 전문과정 5차 workshop -

- 일 시 2006년 9월 2일(토)
- 장 소 중앙대학교병원 4층 동교홀
- 주 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2:20 ~ 13:00 등록
13:00 ~ 13:10 개회사

연병길 (이사장)

“뇌영상의학 자료의 판독 술기”

교육 내용 :

1. 대뇌 영상자료를 판독하기 위한 신경해부학 훈련
2. 대뇌 영상자료의 판독

사회 : 김도관 (학술이사)
진행자

13:10 ~ 13:20 교육 소개

제1부 뇌영상의학 자료의 판독을 위한 기본지식

좌장 : 연병길 (이사장)

13:20 ~ 14:10 뇌이상의 진단을 위한 영상의학기법

김재형 (서울대)

- 가. 대상 환자에게 적절한 뇌영상 촬영술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 나. 각각의 뇌영상 촬영술은 어떤 원리로 영상을 얻는가?
- 다. MRI 기법(T1, T2, FLAIR, Gradient-echo 등)을 이용하면 무슨 장점이 있는가?
- 라. MR angiography에서 확인해야할 구조물은 무엇인가?
- 마. 노인들에서는 MRI protocol을 어떻게 설계하여야 하는가?

14:10 ~ 15:00 피질해부학

나덕렬 (성균관대)

- 가. 피질해부학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기
- 나. MRI를 통한 신경해부학의 이해
 - ① Mid-sagittal 단면에서 주요 gyrus 구획 익히기
 - ② Axial cut 주요 단면의 구조물을 눈으로 익히기
 - ③ Coronal cut 주요 단면의 구조물을 눈으로 익히기

15:00 ~ 15:50 허혈성 뇌질환의 영상진단

나동규 (서울대)

- 가. 뇌경색의 시간 흐름에 따른 뇌영상적 변화 이해
- 나. 주요 뇌혈관의 경색에 의한 뇌영상학적 (MRI, MRA) 소견 이해
- 다. 허혈성 뇌질환의 주요 패턴에 따른 뇌영상학적 소견
- 라. 허혈성 뇌질환의 적절한 진단을 위한 영상의학기법의 선택

15:50 ~ 16:10 Coffee Break

제2부 뇌영상의학 자료의 판독 실제

Pannel discussants : 김성윤 (울 산 대)

16:10 ~ 17:10 뇌영상의학 자료 판독 실습 I
17:10 ~ 18:10 뇌영상의학 자료 판독 실습 II

이창욱 (가톨릭대)
이창욱 (가톨릭대)
김도관 (성균관대)

| 학술 활동 소식 |

- (사)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

제11회 고령사회포럼 <장수과학 R&D,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06년 9월 12일 (화) 19:00
-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대강당
- 주최 (사)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장수과학 R&D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 김태현 교수(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19:00	개 회	
19:00 ~ 19:10	인 사 말	고창순 고령 (사회포럼위원장)
19:10 ~ 19:50	주제발표	박상철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19:50 ~ 20:10	토론발표 I	정인권 교수 (연세대 생물학과)
20:10 ~ 20:30	토론발표 II	이영수 교수 (울산대 의과대학)
20:30 ~ 21:15	청중토론	
21:20	폐 회	

- (사)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

2006년 서울국제노년학술회의 및 추계연합학술대회
 <Trends in Long-Term Care in Canada: Lessons for Korea>

- 일시 2006. 10. 27 (금) 9:00 ~ 18:00
- 장소 양재 aT Center, KOTRA
- 주최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화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

<서울국제노년학술회의> (aT Center 5F 대회의실)

9:00	등록	사회 : 이동우 교수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총무간사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9:30 ~ 10:00	개회사	연병길 교수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10:00 ~ 10:30	건강장수노인선발대회 및 노인의날 정부포상자 시상식	
10:30 ~ 12:00	초청 강연	Gloria Gutman 교수 (전 IAGG 회장) <Trends in Long-Term Care in Canada: Lessons for Korea>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8:00	학회별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추계연합학술대회>

- I.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aT Center 5F 대회의실, 3F 중회의실 Room I, KOTRA 국제회의실)
 <고령화 저출산 시대와 노년의 삶>

- ▲ aT Center 5F 대회의실
- 13:30 ~ 14:00
- 개회사 및 시상식
- 사회 : 김승용 교수 (한국노년학회 총무 ·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한형수 교수 (한국노년학회장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학술 활동 소식 |

14:00 ~ 14:40	기획주제 I	좌장 : 황진수 교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발 표 최성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토 론 윤현숙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4:40 ~ 15:20	기획주제 II	좌장 : 김태현 교수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발 표 이완정 대표 (Senior Communication) 산업측면에서 바라본 노인의 삶의 질 토 론 이호갑 상무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 이계현 대표 (For Seniors)
15:20 ~ 15:30	휴식 & 이동	
15:30 ~ 16:30	주제발표	좌장 : 한경혜 교수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발 표1 김태일 교수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고령사회의 노후주거 어떻게 할 것인가? 토 론 허준수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발 표2 김현수 교수 (서울산업대학교 사회체육학과) Successful Aging을 위한 신체활동 · 운동의 역할 토 론 김찬우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30 ~ 16:40	휴 식	
16:40 ~ 17:40	의료 · 복지시설 접근성과 뇌의 삶의 질 연구 - 대도시, 농촌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 노년기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경향	발 표3 전미애 교수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전해정 교수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발 표4 이선영 교수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엄기욱 교수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8:00 ~ 19:00	만찬	
▲ 3F 중회의실 Room I		
15:40 ~ 17:00	Session I	좌장 : 서혜경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발 표1 김혜경 교수 (백석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노인정보화 교육의 효과성 토 론 이금룡 교수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발 표2 함철호 교수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케이스메니지먼트 토 론 남현주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모델 적용의 사례연구 발 표3 박현식 교수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배지연 연구교수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센터) 노인의 우울과 위험 행동간의 관계연구 토 론 전광현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7:00 ~ 17:10	휴 식	
17:10 ~ 18:00	Session II(현장세션)	좌장 : 조기동 명예회장 (한국노인복지회) 발 표1 신선자 원장 (어르신 요양센터 '노을') 노인복지 시설운영의 실제와 과제 발 표2 이순 원장 (유당마을) 실버타운 노인요양시설의 운영현황 - 유당마을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 토 론 정성기 관장 (굿프랜드) 김용년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박혜선 서기관 (경기도청)
18:00 ~ 19:00	만찬	

| 학술 활동 소식 |

▲ KOTRA 국제회의실

15:30 ~ 16:20

Session III : 대학원세션

좌장 : 유성호 교수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1 | 심석순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수료)

노인발달과정과 노인복지프로그램과의 관계

발표2 | 유호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보살핌 노동인력 부족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노인요양보호(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를 중심으로 -

토론 | 최혜지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20 ~ 16:30

휴식

16:30 ~ 17:20

발표3 | 허소영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윤현숙 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적 관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발표4 | 이선형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와 실버산업수요자로서의 전망

토론 | 김 옥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8:00 ~ 19:00

만찬

II. <한국노화학회> 심포지움 (aT Center 3F 중회의실 Room II)

<생명노화연구의 최근 동향 (Recent Progress in Biogerontology)>

좌장 : 황은성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13:30 ~ 13:40

Opening remarks

김용선 교수 (한국노화학회 회장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13:40 ~ 14:40

A proposal for an ambitious program of research on the
genetic basis for elite human aging

George M. Martin, M.D. (University of Washington, USA)

14:40 ~ 15:20

A Drosophila model of autosomal recessive juvenile parkinsonism

조경상 교수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15:20 ~ 15:40

Coffee Break

좌장 : 김형춘 교수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15:40 ~ 16:40

Cognitive dysfunction induced by chronic restraint stress
in ovariectomized animals

Kiyofumi Yamada, Ph.D. (Kanazawa University, Japan)

16:40 ~ 17:20

The role of NFB42 in neuronal latency of Herpes simplex virus type 1

엄치용 박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7:20 ~ 17:30

Closing Remarks

III. <대한노인병학회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심포지움(aT Center 3F 소회의실)

<고령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수립>

좌장 : 연병길 교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13:30 ~ 14:10

노인병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윤종률 교수 (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14:10 ~ 14:50

노인보건의료센터사업의 방향성

장현숙 박사 (보건산업진흥원)

14:50 ~ 15:10

Coffee Break

15:10 ~ 15:50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김광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5:50 ~ 16:30

치매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이동우 교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16:30 ~ 17:10

토론

국제 노인 정신약물학회 참관기

정재원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3년차)

2007년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국제노인정신약물학회(ICGP: international college of geriatric psychoneuropharmacology).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주간이고, 마침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 열린 터라, 운이 좋게도 내게 학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학회 프로그램은 10월 3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지만, 히로시마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site visit program에 참가하기 위해, 하루 일찍 히로시마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도착한 날 바로 오후 히로시마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은 시작되었다. 히로시마 대학 병원은 1945년에 건립되었다가 바로 그해 원폭으로 인해 붕괴되었고, 바로 이

듬해 다시 지어졌다고 한다. 그런 만큼 구건물은 역사가 느껴지는 낡은 건물이었고,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다. 바로 옆에 몇 년전 새로 지었다는 건물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 역시 규모는 작았지만 산뜻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이었다. 우리 일행은 조그만 회의실로 안내되어 히로시마 야마와끼 대학 교수의 인사말을 들은 후, 외래, 병동, 자문, psycho-oncology, lab등 각각의 파트를 담당한 의사들의 프리젠테이션을 들었다. 영어는 그리 유창하진 않았지만 매우 열심히 자기 분야를 설명해주는 모습이었다. 한 섹션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그 섹션을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외래의 야마와끼 교수의 진료실이 인상깊었다. 교수의 책상 뒤로 몇 개의 책상이 더 있었는데, 그곳에서 밑의 의사들이 진료를 참관한다고 했다. 전체적으로는 한 명의 교수를 중심으로 하부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다소 권위적이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어 보였다. 낮에는 문을 열어 놓고, 밤에만 문을 잠근다는 부분폐쇄개방병동(?)도 신기하게 느껴졌다.

둘째날은 본격적인 학회 시작 전 training day program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나도 생소했지만, 히로시마 대학 사람들도 그 프로그램이 매우 special하고 unusual한 것이라면서 필히 참석할 것을 권하는 모습이었다. 학회와 다른 장소인 ANA 호텔에서 진행되었고, 오전에는 International Junior Investigator Awardee's Presentation으로 각국의 12명의 수상자들의 연구 성과 및 연구 교실 소개를 듣는 시간이진행되었다. 오후에는 'How to write a paper', 'How to get a grant'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미국 유수의 대학 교수들로부터 그런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좋은 경험이었고, 특히 'Importance of mentorship'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시간에서, 피츠버그 대학 교수 Charles F. Reynold와 그를 mentor로 삼고 있는 제자들이 나와서 대담 형식으로 어떤 점이 힘들었고, 어떤 점을 mentor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얘기하는 시간은 꽤 인상적이었다. 히스패닉계로 생각되는 남자 fellow가 자신은 처음에 시간관리(time manage-



| 해외학회 참관기 |

ment라고 표현했었던 것 같다)가 어려웠었는데, mentor로부터 도움을 받아 일과 가정에 배분하는 시간들을 현실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mentor로부터 학술적인 조언 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조언을 받은 경험을 얘기한 것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셋째날부터는 본학회가 시작되었다. 학회 장소는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Peace memorial park)내에 있는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였다. 본 학회는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여러 심포지움 및 랙처로 구성되어 있었다. 내가 현재 전공의 신분이라서 그랬는지, UCS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training director인 sidney zisook이라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인상을 한 교수가 STAR*D project에 대해 강의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 동양인을 의식한 듯 천천히 얘기하는 데다가 발음이 분명해서 알아듣기 좋아서 그랬는지 뭔가 친근감 같은 것이 느껴졌었는데, 강의 후에 열린 포스터 세션에서 보니 그가 자신의 포스터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그 모습에 이끌려 포스터를 보러 간 나에게도 먼저 질문이 있냐고 물었고, 나의 더듬거리는 질문에 매우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다. 외국 유수의 대학교수가 직접 자신의 포스터를 친절하게 설명해준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매우 고무적이고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 외에도 Dementia, Depression의 neurobiology, bereavement, suicide 등 여러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강의 및 청중과 연자, 연자들 상호간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면서도 알차고 짜임새 있다는 느낌이였다.

학회 장소가 평화 기념 공원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원폭 기념관과 원폭 돔 등을 짬짬히 구경할 수 있었다. 원폭 기념관에는 원폭이 투하되던 상황 및 배경 등의 여러 시청각 자료, 원폭 투하 때 입고 있었던 너털너털해진 옷가지, 일그러진 병 등이 전시되어 그 때 당시의 처참함을 재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타국민에게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반성은 없이 피해자로서의 모습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기념관을 거니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왔다. 그래서인지 유네스코 문화 유



산으로 지정되었다는, 원폭 투하시 완전히 붕괴되지 않은 유일한 건물인 “원폭돔”을 파란 눈의 관광객들이 경탄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다소 냉소적인 마음으로 보였고, 이후 공원 한켠에 숨어 있는 듯 서있는 한국인 위령비 앞에 섰을 때는 마음이 몽클하기까지 했다.

넷째날 저녁에는 시상식 및 세레모니가 열렸다. 여러 award를 한국에서 수상하는 등 이 학회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portion이 꽤 크다고 생각되었고, 웬지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내게 가장 크게 남았던 것은, 작은 도시 히로시마에서 이런 국제학회를 개최해내는 ‘일본의 힘’이었다. 히로시마 시장이 와서 축하인사를 하고, yamawaki 교수가 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는 광경을 보면서, 학술적인 행사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치와 무관하지 않은가,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런 광경이 연출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스쳐지나갔다.

4박 5일간의 일정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는 사뭇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번 학회를 통해서 짧은 시간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뿌듯한 느낌이 들었고, 일상에 폭 들어와 학회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고 있던,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다시금 그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다. 아마 그 느낌이나 학회를 통해 갖게 된 깨달음이 진정한 배움이나 발전이 되려면 일상에서의 노력이 꾸준히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마치려 한다.

| 학술대회 안내 |

2006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 일 시 | 2006년 11월 10일 (금) 10:00 ~ 18:00
- | 장 소 |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 | 참 가 비 | 정회원/전공의/군전문의 20,000원 비회원/전문의 30,000원 평생회원 면제, 중식제공
- | 사전등록 | www.kagp.or.kr (2006년 11월 5일 마감)
우리은행 1005-380-213455 예금주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 | 연수평점 | 대한의협평점 5점, 노인정신건강 전문과정 이수평점 15점
- | 주 최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 | 후 원 | 한국안센, 한국에자이, 한국문드백, 한국노바티스

초대의 글

가을이 점차 깊어가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계학술대회와 정기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알츠하이머 박사가 최초로 알츠하이머병을 보고한지 10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하여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기념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를 진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강좌가 오전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금년 정기 총회에서 여러 회원들에게 보고드릴 것은 지난 9월 초에 열린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에서 노인정신건강세부전문의가 부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 대의원회에 상정한지 만 2년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어쨌든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결된 이유는 노인세부전문의 제도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회원들이 받을지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기우와 이 제도를 통과한 후에 다른 세부전문의가 우후죽순처럼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조하였던 노인세부전문의가 필요하게 된 학회 외적 주변 여건과 다른 학술 단체들의 동향은 결정을 내리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년간의 긴 세월을 허송하였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이러한 결정이 정말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은 너도 안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는 아닌지 의문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이러한 중대한 결정이 앞으로 노인정신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후배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국제학회, 춘·추계 학술대회, 5회의 노인정신건강 전문과정 워크숍, 그리고 2회에 걸친 지방 워크숍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많은 회원들이 노인정신건강세부전문 의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지식과 노인정신질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술기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체 정신과 전문의의 절반이 넘는 약 1,100여명의 전문의 회원이 등록하였으

| 학술대회 안내 |

며 약 600명 이상이 세부전문의 취득에 필요할 평점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찬동하시고 동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인증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 학회를 책임지고 이 제도를 추진해왔던 저로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희 세부전문의제도를 지지하고 참여하셨던 여러 회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노인정신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노인정신의학회 회원과 나아가 정신과 전문의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와서 아예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자체적으로 노인정신의학 전문가를 교육, 훈련하고 정해진 평가를 거친 후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는 현재까지 추진해왔던 세부전문의에 상응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세밀한 계획은 차기 집행부에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노인정신의학회와 세부전문의 제도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많은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의 정신건강을 지켜줄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앞으로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10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연 병 길

Ebixa
memantine

“새로운 기전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Lundbeck

한국룬드벡 주식회사

제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Tel. 02)431-6600 Fax. 02)431-6886
www.lundbeck.co.kr

주한국안센

It's Nice

Allosteric Nicotinic Modulator

Reminyl
GALANTAMINE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문의들이 치매치료를 위해
아리셉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hlc
Human Health Care Company

Eisai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향타워 12층
Tel. 02)3451-5500 Fax. 02)3451-5599
www.aricept.co.kr

NOVARTIS **EXELON**
(rivastigmine)

**치매, 이제는 다르게
접근 할 때입니다.**

Rapid decline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Exelon투여시 더욱더 효과가 우수합니다.
(12주후 ADAS cog에 있어서 5점이 향상)

| 학술대회 안내 |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06 추계연수교육 -

• 일 시 2006. 11. 10. (금) 10:00 ~ 12:00
• 장 소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사회: 유승호 (건국대)

Alzheimer's Disease: A Century of Scientific Progress in Neuropsychology

좌장: 정한용 (순천향대)

10:00~10:40	100 Years of Alzheimer's disease: Neuropsychology	박혜연 (분당서울대병원)
10:40~11:10	Differentiation of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	정지향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11:10~11:40	Longitudinal changes of neuropsychological impairment in the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안인숙 (삼성서울병원)
11:40~12:00	Q & A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06 추계학술대회 -

• 일 시 2006. 11. 10. (금) 13:30 ~ 18:00
• 장 소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Alzheimer's Disease: A Century of Scientific and Clinical Progress

알츠하이머병이 소개된 지 100년 되는 시점에서 임상적 진단 기준, 병태 생리 그리고 치료에 대한 그 동안의 발전과 변화를 고찰하고 향후의 행로를 조망해 보고자 함

13:20~13:30	개회사	연병길 (이사장)
		사회: 김도관 (학술이사)
13:30~14:10	History of hypothesis on the pathophysiology of AD	목인희 (서울대 생화학)
14:10~14:50	Current strategy and future perspectives of the treatment of AD	김기웅 (서울대)
14:50~15:20	Illustration of current research on AD	정용근 (서울대 생명과학부)
15:20~15:40	Q & A	
15:40~16:00	Coffee Break	

| 학술대회 안내 |

16:00~16:40	From the description of clinical symptomatology to the diagnostic criteria	김성윤 (울산대)
16:40~17:20	Visualization of brain pathology with developed imaging technology	이창욱 (가톨릭대)
17:20~17:40	Q & A	
17:40~18:40	총 회	

|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 총연합회 관련 소식 |

- 10월 27일 양재 aT Center에서 개최된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노인병학회와 공동으로 "고령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수립"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진행 소식 |

- 9월 7일 개최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제도가 부결되었습니다.

| 회원 동정 |

● 김도관 학술이사

삼성서울병원 정신과학교실의 김도관교수 연구팀의 원저논문(Title : Monoamine Transporter Gene Polymorphisms and Antidepressant Response in Koreans With LateLife Depression)이 2006년 10월 4일 간행된 미국의학회학술지(JAMA,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5 Impact factor 23.332)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에는 김혜란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임상강사가 제1저자로, 임신원 (삼성생명과학연구소 임상의학센터), 김선우 (삼성생명과학연구소 통계지원실), 김종원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장윤희 (명지대) 선생님들이 공저자

| 회원 동정 |

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인종간 차이뿐만 아니라, 약물의 기전에 따라 유전적 다형성이 약물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추가로 밝혀, 향후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임상 의사들이 개별 환자에게 맞는 약물을 선택하는 맞춤형 치료 (tailored medicine)를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http://jama.ama-assn.org/cgi/content/short/296/13/1609>)

● 오병훈 부이사장

1. 제6차 국제노년정신약물학회(2006. 10.4-6, Hiroshima, Japan)에 참석하였으며, 제 7차 ICGP 국제노년정신약물학회(2007. 10.31-11.2, San Diego, United States) Council Member로 유임되었습니다.
2. 제13차 세계노인정신의학회(2007. 10.14-18, Osaka, Japan)의 IPA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Vice Chair로 활동 중입니다.
3. 12th PRCP Scientific Meeting Taipei, Taiwan 5-8 October 2006에 참석했습니다.
4.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부회장으로 유임되었습니다.

● 이형영 학회 고문

8월 25일 본 학회 고문이신 전남대학 이형영교수의 정년퇴임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공로패를 수여하였습니다.

학회 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유승호 총무이사(전화 : 2030-7567, 팩스 : 2030-7399, E-mail: shryu@kku.ac.kr)에게 보내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입회비 : 2만원
- 연회비 : 3만원
- 평생회원 회비 : 50만원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온라인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80-213455 예금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사무처

143-729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12
건국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유승호 (총무이사)

• 팩스 : 02-2030-7399 • E-mail : shryu@kku.ac.kr

이문수 (총무간사)

• 팩스 : 02-852-1937 • E-mail : npboard@hanmail.net

● 이정식 회원

노인정신의학 2006년 10권 1호에 "시설거주 노인우울 증의 인지기능저하"를 게재한 용인정신병원 이정식 회원이 제 1회 노인정신의학 논문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국제노년정신신경약물학회(International College of Geriatric Psychoneuropharmacology)에 연병길 이사장, 오병훈 부이사장, 이창욱 총무이사, 김도관 학술이사, 정한용 교육이사, 전진숙 간행이사 등 회원 다수가 참가하였습니다.

기 타

한국노인과학술단체연합회에서 노인관련 도서추천 의뢰가 있어 회신하였습니다.

노인정신의학 논문 투고 안내

1. 투고규정의 일반 원칙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의 투고규정에 준합니다.
2. 투고자격 : 본 학회 논문과 편집위원회에서 의뢰되었거나 인정된 논문으로 합니다.
3. 원고의 종류 : 특집, 종설, 원저, 임상단보, 증례보고, 서평 등입니다.
4.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습니다.
5. 학회지는 매년 6월과 12월에 발행하며, 원고의 마감은 4월 말 일(6월분)과 10월 말일(12월분)까지입니다.

• 논문접수처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노인정신의학" 편집위원장 정한용

402-70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74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과

• 전화 : 032-621-5232

• 전송 : 032-621-5018

• E-mail : hanyjung@schbc.ac.kr

- 주의사항 : 원본 1부와 디스켓, 사본 2부를 논문게재동의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자우편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논문의 양식 등 기타 사항은 '노인정신의학' 및 홈페이지 (<http://www.kag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